불자 세상보기

최 성 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

무너지는 천륜

내 나이 열 살도 채 안 된무렵, 그 때 나는 <명심보감(明心寶鑑)> 흥얼거리기를 좋아 했었다. 그 나이에 무엇을 알았으랴만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이화니라(子曰 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 공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준다' 고 했다)"는 구절을 외고 또 외웠다. 아니 차라리 떠들고 다녔다고 해야겠다. 뜻은 그만두고 그저 공부를 빙자한 욕설이라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그런 암기식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펄쩍 뛰겠지만 그때는 무턱대고 외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래도 그런 공부 덕분에 지금도 가끔 원문을 외울 수 있어 좋다. 아마도 반복학습을 통한 훈습(薰習)이 아쉬워서 그럴지도 모른다.

한참 나이가 들어서 안 일이지만 <명심보감>은 원래 20편으로 되어 있다. 후에 증보(增補), 팔반가(八反歌), 효행(孝行), 염의(廉義), 권학(勸學) 등이 더해져 현재는 25편으로 되었다. 그 바람에 같은 이름을 가진 편(篇)이 하나 더 늘었다. 본래부터 분량이 많아 상하로 나누었던 성심편(省心篇)에 추가된 효행편이 그것이다. 추가된 것임을 표시하면서 성심편의 그것과도 구별하기 위해 일부러 <효행편(續)>이라고 한 것도 묘미가 있다.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 이라는 책 이름 그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보배 거울이 될 성현들의 격언(格言)이 주를 이룬다. "천명(天命)에 순응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천명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한 것처럼 처음의 계선편(繼善篇)에서부터 마지막 권학편(勸學篇)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섭리를 본받아 인간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라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 얼마 전께는 광주에서 한 비정한 아버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섯 살짜리 아들과 함께 여관에 투숙했던 아버지가 아들만 남겨 둔 채 혼자 사라졌다는 것이다. 차가운 한강 물에 어린 남매를 던져 수장시킨 아버지가 우리를 경악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부천에서는 초등학생 두 명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포천에서는 귀가하던 여중생이 실종되기도 하였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고나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보육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의 수도 2002년에 이미 2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죗가를 치러야겠지만 나라의 희망인 우리의 아이들이 왜 무참하게 희생당해야 하는가. 어린 넋을 차마 보낼 수 없어 구슬피 우는 부모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다는 기인지우(杞人之憂)의 고사성어를 말이다. 지금 우리는 그 기우(杞憂)가 아닌 천륜(天倫)이 무너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삼국유사>를 읽어 본 사람은, 아니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들어서 알고 있을 법한, 손순(遜順)의 얘기도 말이다. <명심보감> 효행편(續)에 다시 등장하여 우리에게 훈습된 얘기가 아니던가. 아이가 버려지기는 그 때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그런데도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부모 봉양이 아니라, 단지 경제가 힘들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이다. 그것도 카드 빚이다 뭐다 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뿐이다. 내 어렸을 때처럼 '천보지이복(天報之以福)'을 귀가 닳도록 듣고, 눈이 시리도록 보게 하는 몸에 배게 하는 훈습 교육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희망으로 자랄 텐데.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새해 들어 불교문화계에는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각 종단이 다투어 서울에 불교문화와 관련된 회관건립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조계종은 현 서울 종로 조계사 안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했는데,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2월 17일에 준공식을 갖는다고 하며, 이어 2차 공사도 금년 말까지 끝날 것이라 한다.

조계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 · 전승하고 활성화 · 대중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전통불교문화산업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예술의 전당 인근에 건립한다. 부지 1만여 평에 건평은 5천평의 규모로 2006년 상반기에 완공될 계획이라 하니 자못 기대가 크다.

불교문화 '중흥불사'

한편 태고종도 '한국전통문화전수회관'을 종로구 사간동에 자리하고 있는 법륜사에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 시작하여 내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회관은 영산재를 비롯하여 불화, 단청 등, 주로 불교문화 가운데 무형문화재 분야의 전수를 위한 중심공간 역할을 다할 것이라 한다.

그 동안 불교문화 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불자들도 안타까워 해왔다. 매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쉬운 대로 갈증을 풀게 되는 셈이다. 문화 공간 또는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려 온 입장에서 부디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 불교문화 중흥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다만 이 사업이 단지 문화공간의 확보나 전문기관의 설립이라는 명분에 머물지 않고 내실을 기하려면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 또한 불교계 전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단별이나 기관별로 특성화하거나 전문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기선(불교조형연구소장)

이렇게 들었다 '나'는 '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크게 재물을 모은 다음 한꺼번에 보시를 하겠다." 그러나 크게 모으기도 전에 임금이나 수화(水火)나 도둑에게 빼앗기든가, 그런 화를 면한대도 문득 죽게 되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런 사람은 우유를 한꺼번에 짜려는 사람과 같다.

〈백유경〉

대보름을 맞는 마음이 몹시도 불편했다. 아무 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켰다가 일가족이 변을 당하고, 저녁 운동을 나갔던 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이 삭막한 세상에,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따위는 가당찮은 일이다.

농경사회에 뿌리를 둔 대보름의 풍속이 오늘날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도 본래 모습으로 전승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오늘날 말하는 '시민의식'과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다.

대보름 세시풍속의 일관된 정신은 공동체의 번영과 결속이다. 동제(洞祭), 달집태우기, 줄다리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액운을 떨치고 복을 받기 위해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는다는 '백가반(百家飯)'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대의 행위다. 흔히 아홉 집을 도는데, 세 집 이상의 타성바지 집의 밥을 얻어먹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 이구동성으로 경제난을 말하면서도, 해고된 동료를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내 월급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공교육의 붕괴를 개탄하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상식 밖의 고액 과외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허위의식을 걷어내지 않는 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야만은 계속된다. 연기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다.

■윤제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도법 스님의 대통령 옹호

선우도량을 이끌고 있는 도법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칼럼을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했다. 나 역시 선우논강의 회원이며 불교 개혁에 대한 스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당선에 내심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 중 한 명임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도법 스님의 이번 글은 몇 가지 이유에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선, 노 대통령의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발언을 "권위주의와 절대 권력의 칼을 내려놓은 일"이라고 한 점이다. 도법 스님은 '탈권위주의'로 평가했지만 발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마치 국민에게 투정 부리듯,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되고 보니 '딴 죽 거는 것이 많아' 못해 먹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 후의 재신임 발언과 행정수도 이전 등의 표현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이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을 갖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일찍이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시장바닥의 놀림감으로 취급되어 있어 안타깝다"라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작 놀라운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초기의 압도적 지지율에서 불과 몇 개월도 안 돼 과거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 준 대통령의 능력과 자기들은 '다르다' 고 항변하던 그들도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들이 개혁의 대상이라 여겼던 이들과 너무나 똑같아져 버린 현실이다. 도법 스님의 말처럼 "'가능성 있는 싹'이니 잘 키워보자"라고 기다리기엔, 더욱이 그간 노력과 인내를 마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싹수'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 공감대를 요구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싶다.

말꼬리 물고 호들갑 떠는 것은 나도 진절머리가 난다. 나의 '나섬'이 도법 스님에게 누가 되거나, 더욱이 상상력은 풍부하나 속물(俗物)인 무리들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성법 스님/세존 사이트(www.sejon.or.kr) 운영자

하와이 포교 여건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수미산이다.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의 산으로, 세계의 최하부를 풍륜(風輪)이라 하고 그 위에 수륜(水輪) · 금륜(金輪:地輪)이 겹쳐 있으며, 금륜 위에 구산팔해(九山八海), 즉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8개의 큰 산이 둘러싸고 있고, 산과 산 사이에는 각각 대해가 있는데 그 수가 8개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지구의 중심부인 남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8개의 섬과 8개의 바다로 되어 있는 하와이가 수미산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힐로섬은 이곳에서 제일 큰 섬으로 여신 펠레가 산다고 하는데, 펠레신은 지장경 표지에서 본 지장보살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 오하후섬에 있는 하와이 무량사(대원사)뿐만 아니라 일본 사찰과 하와이 호놀룰루 시내 여러 곳에 있는 중국 사찰들이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하와이야말로 자연과 기후 환경이 극락정토로 불릴만하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열반하신 고암 스님은 지금의 무량사(대원사)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제일 규모가 큰 한국식 사찰로 창건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다. 또한 일타 스님도 이곳을 국제포교의 근거지로 활용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하와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포교 여건도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불자들이 이곳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와이는 불교의 성지가 될만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보면 수미산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할 만큼 아름답고 깨끗하며 살기 좋은 정토임을 깨달을 수 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하와이와 인연을 맺기를 권하고 싶다.

김덕조/하와이 정법사 포교사

'현대' 만평 심 민 섭

거복을 헐어 참회 공덕 짓는다

대한항공 미얀마 특별전세기 운항

부처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때묻지 않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출발일 : 2/25, 2/29, 3/4, 3/8 (5박6일) 단 4 회 한정 / 선착순 500명

✲ 불교성지순례 – 종전 ₩1,680,000 ⇒ ₩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샤가잉)-양곤-인천

✲ 문화탐방 – ₩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주관 여행의 명문 한진관광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btn 불교텔레비전 32 미얀마 관광청

한진관광 서울 02)726-5788, 5780 / 부산 051)463-2115

미안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5박 6일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이라와디강 석양감상후 호텔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샤가잉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아침공양후 공파웅왕조의 만달레이 이동 우베인다리,마하간디용수도원,만달레이언덕 순례 샤가잉 이동후 쉰우퐁야산,우민동제파고다 순례 만달레이 귀환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MANDALAY HILLRESORT CLASS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9:30 11:05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후 로카찬다욱불사,차욱탓지파고다,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 천견/정대불사 봉행) 아웅산마켓 견학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아침공양후 쌍쉐다곤파고다,마하시수도원 순례 아웅산기념탑 경유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성불하십시요*	조	기내식
					중	
				HOTEL	석	

미안마 문화탐방 5박 6일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해호	국내선	15:30 16:40	호텔 조식후 쉐다곤파고다,아웅산기념탑 경우 쉐도파고다,로카찬다 옥불사 해호 이동 석식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HOTEL | HUPPIM HOTEL CLASS		
제03일	해호 파간	전용보트 국내선	17:05 18:35	호텔 조식후 인따족의 수상시장 및 수상경작지 외발노젓기 관광 팡도우파고다,인뗑유적지 관광 파간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4일	파간 양곤	국내선	18:55 20:15	호텔 조식후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쉐산도파고다 양곤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호텔 조식 후 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 관광 차욱탓지파고다,아웅산마켓 관광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조	기내식
					중	
				HOTEL	석	